

일본어로 풀어보는 일본사회: 오타쿠(オタク)

80년대 오타쿠는 사회와 격리된 어두운 집합체였다면 90년대는 일본의 하위문화를 이끌어가는 선도적 역할을 했고, 21세기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지식층으로 거듭나고 있음

□ 특정 분야에 몰두하는 성향

- 1980년대 풍요로움을 만끽하던 일본인들의 삶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 새로운 신조어가 만들어짐
 - 풍족한 삶의 이면에서 획일화된 교육과정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성을 쌓아가기 위해 사회와의 교류를 단절하는 사람들이 생겨남
 - 사회와의 단절로 오로지 하나의 분야에 몰두하는 성향을 나타내게 되고 이러한 일본사람들의 성향을 적절하게 표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오타쿠(オタク)임
- * ‘오타쿠(オタク)’는 상대방이나 그 남편 또는 그 집안을 높여 부르는 ‘오타쿠(お宅)’에서 나온 말로 원래 뜻과 구별하기 위해 가타카나(片仮名)로 쓰임

□ 어두운 음지로 그려지는 오타쿠(オタク)

- 오타쿠 문제의 심각성은 1989년 4명의 어린 소녀가 연이어서 살해된 사건을 통해 일본사회 전역에 알려지게 됨
 - 도쿄(東京)와 사이타마(埼玉)현에서 일어난 이 연쇄 살인 사건은 살해한

소녀의 유골을 범인이 부모에게 우송하는 등의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던 사건임

- 검거된 범인은 26세의 무직 청년으로 범인의 방에 애니메이션 비디오테이프가 수북하게 쌓여있어 언론에서는 이를 오타쿠 사건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함
- * 일본에서 인지도가 높은 국어사전인 「고지엔(広辞苑)」에서 오타쿠를 ‘특정 분야에만 관심을 가져 이상할 정도로 자세히 알고 있지만 사회적 상식이 결여된 사람’ 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일반적 인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 새롭게 조명 받는 오타쿠의 존재

- 일본사회의 어두운 한 면을 그려내는 듯 했던 오타쿠는 1990년대 들어오면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기 시작함
- 현대의 오타쿠는 과거 비사회적이고 자기 틀에만 박혀 사는 사회의 낙오자가 아니라 일본의 대중문화를 창조하는 전문가들의 집합체로 인정받기 시작함
- * 이들은 깊은 상상의 세계를 통해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상품성이 뛰어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실제 오타쿠들이 모여 기업을 만들어 업계의 주목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음
- *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는 가이낙스(GAINAX)라는 대표적인 기업이 있음
- 일본 사회에서 독특한 대중문화의 창조집단인 오타쿠는 폐쇄적이고 전문적인 일본적 집단임에는 틀림없으나 대중문화 속에서 오타쿠적 요소가 담긴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이 인기를 얻자 하위문화(Subculture)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오타쿠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고 있음

- 최근 오타쿠는 또 다른 형태로 일본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음
 - 2004년 출간되어 밀리언셀러에 올라 영화로도 제작되어 개봉 2주 만에 100만 관객을 동원한 작품 덴샤오토코(電車男)의 주인공이 바로 오타쿠였기 때문임
 - * 이 소설은 덴샤(電車, 전철)안에서 술에 취한 중년 남자에게 희롱당하는 여성을 구출한 오타쿠 청년이 구해준 여성과 사랑에 빠지면서 익명을 통해 인터넷에 상담을 하고 그의 글에 누리꾼이 자신들의 연애 경험을 전하는 댓글을 달아주며 펼쳐지는 이야기임
 - * 댓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누리꾼들 자신의 경험이라기보다는 주인공에게 심리적으로 공감하는 같은 성향의 집합체임을 짐작하게 되며 바로 오타쿠들이 서로 격려하며 만들어낸 제작물로 일본사회 곳곳에 잠자고 있던 오타쿠들을 하나로 묶는 인터넷문화를 만들어 냈다고 할 수 있음

□ 오타쿠의 새로운 이해(理解)

- 최근 오타쿠의 대한 인식이 새롭게 조명되고는 있지만 이들의 행동을 미화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됨
 - 일본의 소장파 정신의학자 사이토 다마키씨는 ‘폐인과 동인녀의 정신분석’이라는 책을 통해 오타쿠로 대변되는 사회적 은둔자를 분석하여 일본 사회를 관통하는 정신 병리적 현상을 지적함
 - 저자는 은둔이 광적인 취미 생활과 연관되어 있다는 임상 결과를 통해 오타쿠를 주목하고 이러한 성향의 청소년들은 설득과 강제적인 행동을 통해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함
 - *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사회적응 기간을 거쳐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함
 - 오타쿠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로운 창조를 꿈꾼다면 그것은 사회와 함께 만들어갈 때 비로소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음